

‘한국경제학’, 어떻게 할 것인가?*

박 우 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많은 경제학자들이 혹시 경제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거나, 또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최근 경제학자들이 분석 대상이 되는 경제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그리고 너무 ‘좁게’ 생각하는 등 경제현실을 ‘바르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은 “어떤 경제현실이든 모두 표준과학적 방법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학문”이라거나, “합리적 선택이나 효율, 균형, 한계, 게임 등만으로 모두 풀이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그들 사이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견해로는 경제현실은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풀기 어려운 대상이며, 실제 경제를 보면 ‘복잡, 변전, 연기’되면서 대단히 ‘거칠고’ 또 ‘깊고 넓게’ 흐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된 논문들을 잘 보고 들었습니다만, 이쉽게도 계속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용되는 경제학의 연구방법을 근원으로부터 반성하면서, “경제현실을 바로 보는 길”이 무엇인지, 즉 “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은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¹⁾

2. 경제학은 “경제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경제학을 여러 가지로 풀이합니다만, “만물의 이치인 원리 중에서도 경제에 관한 원리를 경제현실 속에서 찾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원리는 흔히 개념, 모델, 이론, 법칙 등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어느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들

* 본 원고는 2015년 2월 24일(화)~25(수)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첫날 만찬연설(알렌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1) 본 원고는 모두 박우희(2014), 『경제원리, 물처럼 흐른다 : 자연·사회·경제철학 및 인지과학적 접근』, 서울대 문화출판연구원과 이의 요약문인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53권 2호』, 박우희(2014) 논문을 풀이한 것임.

은 모두 ‘보편언명(普遍言明)’을 뜻합니다. 즉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몇 개의 중요 변수를 선택하는 등 추상화 또는 단순화하여 이것을 귀납적으로 검증 및 반증한 후, 여기에서 우연하게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큰 흐름, 경향, 추세, 패턴, 법칙과 이론 등을 찾아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현상을 더욱 잘,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리란, 복잡한 현실을 추상화, 단순화, 체계화, 이상화, 일반화 또는 형식화하여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몇 개의 개념과 변수를 추려, 이를 인과관계로 짜인 방정식이나 말 등으로 표현한 것을 뜻합니다. 이들은 규칙적(regularly)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므로 흔히 보편언명(universal statements), 혹은 보편적 일반화라고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단칭언명(單稱言明)과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두는 원리는 현실의 바탕, 또는 원동력이 되는, 즉 현실이 이들 원리를 축으로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리 쉽게 변치 않는 보편언명으로서, 우리의 말과 문장, 사고도 이런 원리로 짜여 있고, 이런 원리를 찾는 것이 학문이며, 철학이며, 지혜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반드시 존재하며, 그것을 ‘핵’이나 ‘중심’으로 하여 현실이 움직이는 어떤 큰 힘, 단순히 형식적으로 몇 마디 말이나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것 또는 어떤 시나리오 같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 변화의 ‘바탕’, ‘기저’, ‘기본’이 되는 힘입니다.

이러한 원리의 통상적인 뜻은 그 뿌리 철학을 살펴보면 원리가 과연 어떤 것인지 현실(사실, 실제, 존재 등)과의 관계에서 그 본질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또 분명히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언제나 또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동서고금(東西古今), 문화와 나라,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또 그 중에서는 큰 원리와 작은 원리, 강한 원리와 약한 원리 등 그 성격이 모두 다르긴 하지만, 이런 원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디서나 있게 마련입니다. 우주만물과 세상만사는 사실(facts)과 원리로 짜여 있고, 우리의 사고도 이런 원리로 짜여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우주, 자연과 사회, 인성을 이해하고 설명, 예측하기 위해서는, 있는 사실(뉴스 등) 그대료를 모아놓은 지식의 집합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식을 단순화 또는 추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상 속의 숨어 있는 어떤 법칙, 즉 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연과학의 원리나 사회과학의 원리는 모두 지식의 도구이며, 이런 지식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원리를 통해 비로소 올바른 지식이 되고, 이런 지식은 변하면서 발전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성경(잡언)에도, 경전(經典 scripture 중 解脫이나 禪의 모습 등으로)에도, 정치나 사회, 경제, 역사, 예술에도, 물리, 화학, 생물 등 자연현상에서도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의 격언(格言)이나 가훈(家訓), 속담(俗談) 또는 매일 읽는 신문 기사, 특히 제목 뽑기나

책 이름을 붙이는 일, 문장 내의 수사, 이 모두 원리의 실례들입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설을 뽑는 일, 연구의 제목을 찾는 일, 중요 논문의 과제를 선택하는 일, 이들 또한 원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종교나 역사, 정치, 사회, 경제 가운데서 어떤 진리, 즉 원리를 찾아내는 사람을 흔히 예언자, 도인, 철인, 현인 또는 위대한 경제학자라 칭합니다.

3. 이때 경제학자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는 경제현실을 자연현실, 즉 자연현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찾는 방법도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연현실은 본래 존재적이어서 물리학이나 생물학의 환원주의를 동원하면 천지현황으로 묘사되는 우주의 저 먼 곳이나, 분자수준 이하로 측정되는 생물체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큰 오차 없이 이론화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란 지구 위의 자연만이 아니라 광대한 우주(cosmos)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우주의 크기는 태양의 반경 60억km(6.6광년)x활상완(반경 7500광년)x은하계(반경 5만 광년)x국소은하군(반경350만 광년)x국소초은하권(반경 1억300만 광년)x대규모구조(반경 6억 광년)x다른 우주(10^{500})이고, 이 속에는 100억 광년 거리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웜홀이 있고 또 상대성 원리에 의해 시간과 공간이 굴절되어 그 곳 한 시간이 지구 7년에 해당하며, 빛과 물질을 빨아들여 다시 나올 수 없다는 블랙홀까지 존재합니다. 대단히 천지현황(天地玄黃)합니다.

칼 세이건(Carl Sagan)의 ‘코스모스(Cosmos)’와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의 ‘컨실리언스(Consilience)’를 보면, 우주와 생물체는 모두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물리환원적 일원론’으로 천지만물의 움직임을 묘사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현대 자연과학기술은 이러한 우주를 관측하고, 그 구조와 실체를 하나하나씩 밝혀내고 있으며, 나아가 이제는 실제로 태양권 밖에까지 또 생물체의 나노수준 이하의 미시세계까지 항해와 탐사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물리환원적인 통섭적 첨단과학기술의 힘은 정말 위대하고 강력하며 명백합니다. 이러한 자연원리에는 인간의 가치판단과 오욕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인간의 감정, 가치판단이 개입된다면 지구 밖으로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으며 곧장 우주 공간에 낙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자연현실을 대상으로 현대 자연과학이 개척한 연구방법은 실로 강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주류경제학은 이런 자연과학의 방법을 경제현실의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경제현실에는 자연현실에서 작동하는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편 인간의 가치(價値), 영감(靈感), 오욕(五慾 즉, 權, 金, 食, 色, 名 등)이 거칠게 뒤엉키면서 서로 연기(緣起)하고 변전(變轉)하면서 복잡(複雜)한 세계가 창출된다는 면에서, 자연원리와 확연히 다른 원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오욕은 세상을 온통 불태운다고까지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계의 생물이나 무생물과 달리 이성과 오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성 즉 정동, 감동, 변감, 감흥, 기질, 신기 등을 지니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영혼, 지각, 기억, 상상, 직관, 용기, 신념,

의지, 윤리의식, 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함께 상호 작용하면서 인간의 세계에서는 우발, 우연, 전화, 역(易, 끝없는 변화), 변형을 낳게 되고 이로써 모방, 표상, 재현, 대의, 가상의 세계가 끝없이 창조됩니다.

이런 인간의 사고과정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통해 몸과 분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법칙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 사고의 뇌확정 패턴(예컨대, 벽촌에서의 어린 시절이나 전란시에 각인된 특이하고 혼잡스런 개인의 경험, 일생동안 겪은 복잡한 사회적 접촉 등)을 모두 뉴런, 분자 그리고 이온 수준에서 100만분의 1초 내의 범위 내에서 정확히 알고, 그 다음 100만분의 1초 후에 어떤 상태가 올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뇌보다 더 복잡한 작동 방식을 채택한 엄청난게 큰 컴퓨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인간학’(人間學)을 알 수 없습니다.

4. 인간이 만든 경제현실 나아가 역사·사회·정치현상은 자연현실과 달리, “생선 장수의 좌판 위에 있는 생선과 같은 것” 또는 “사실 하나하나를 모두 알고 이들을 모으면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것”(Leopold von Ranke, John Locke, Jean-Jacques Rousseau 같은 실증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니고, “오히려 때로는 접근할 수 없는 더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기와 같습니다. 어떤 고기를 잡아 올릴 것인가는 때로는 우연에, 그러나 대개는 바다의 어디를 선택하여 낚아 낚시질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낚시도구를 사용하는지에 좌우될 것”(T. Parkins, Dilthey, B. Croce)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현실에서의 인과적 지향의 선택체계 즉 끝없는 사실의 바다에서 자신의 목적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 환원하면 무수한 인과적 전후관계에서 오직 그런 것만을 추출”해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중요성을 가르는 기준은, 그런 전후관계를 자신의 합리적인 설명과 해석의 모델에 짜 맞추는 연구자의 능력인데, 여기서 객관적인 연구자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역사, 사회, 경제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로 인하여 제한되어 있는 시야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과거에 투사하여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심원하고 지속적인 통찰력을 지닐 수 있는 사람들(Edward H. Carr)” 즉 원리발견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역사, 사회, 경제현실은 바다와 같이 넓고 거칠어서, 그 속에서 큰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그리 쉽거나 단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랜 경험, 레이터 장비와 같은 새로운 기술, ‘깊은 사려와 판단력’(키케로)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격랑이 몰아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동네 개울에서 붕어를 잡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5. 이런 인식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장자(莊子)는 “인간이란 우물 안의 개구리나 여름벌레, 독사처럼 시간, 지역, 환경, 교육 등에 의해 국한된 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세계의 궁극 원리인 도(道)에 이르러서야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빨간색 안경을 쓰게 되면 빨간색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빨간색 안경을 벗

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칸트(Immanuel Kant) 역시 ‘순수이성비판’에서 “인간은 외부의 대상 자체를 직접 알 수는 없고 오직 감각을 통해 지각한 것을 우리 마음의 형식을 통해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흄(David Hume)은 ‘오성에 관하여’에서, 데카르트(Rene Descartes)는 ‘성찰’에서, 베이컨(Francis Bacon)은 ‘신기관’에서,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에밀’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사람은 보이는 것(see)을 자기 나름의 필터로 거르고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그들을 본다(watch)”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영명한 철인들이 제시한 여러 금언들은 현실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여러 다른 생각과 방법들, 환언하면 주체인 인간이 객체인 자연·사회·인간 자체를 인식하는 다양한 논의들, 즉 존재론, 결정론, 가치론, 인성론, 인식론, 방법론 등의 여러 철학방법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철학방법론이란 터널을 경유해야만, 궁극실제 또는 근본원리(principle)에 당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고전에서도 찾아질 수 있는데, 고전이야 말로 옛날이나 지금에도 의미를 지니는 ‘세상의 원리와 처세의 지혜를 담은 영감어린 정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전에서 여러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로부터 최근의 경제현실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할 가능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최근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는 ‘경제학설의 백화제방과 이종교배’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유럽의 많은 국제학술상을 받았는데, 이도 같은 취지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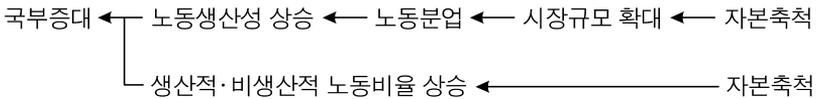
6. 아쉽게도 역사·사회학자들은 역사, 사회, 경제 현실을 이상과 같이 잘 해석할 수는 있었지만, 이런 현실을 이론화하거나 정책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백화제방의 경제학설 중 사회경제학파나 제도학과 등도 그들의 사상을 정교하게 이론화하지 못했습니다. 또 리카도(David Ricardo)나 마샬(Alfred Marshall)등 경제학자들은 이론화는 했습니다만, 정책화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스미스(Adam Smith), 마르크스(Karl Marx),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같은 소수의 경제학 대가들은 경제현상 자체가 역사·사회현상과 달리 ‘자연과 인간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은 물론이고, 그들이 처한 시대의 현실에 맞는 ‘구조와 조건을 갖는 이론’을 찾아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경제현실의 복잡성과 특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연과학적 사고의 틀에 빠지지 않고, 제도는 물론 인간의 영감, 감성, 투쟁, 전쟁까지도 고려하는 지혜를 지녔었습니다. 그들은 고전물리학과 수학에 의존하여 과도한 추상화·형식화·단순화를 추구하거나 형식적 모델을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철저히 추상화한 나머지 경제현실과 전혀 접촉할 수 없게 된, 그래서 논리학이나 언어학, 문체기술론 안에 숨지 않았다”(E. H. Carr)는 것입니다. 어느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들은 전제와 가정, 목적과 범위, 변수선택과 방정식, 연구방법 등을

포함하여, 한마디로 여러 철학방법론을 알고 이론의 전체성을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은 ‘인과적 지향의 선택체계’ 즉, 경제현실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통찰력이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이론으로까지 연결되었고, 여러 세대에 걸쳐 경제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스미스는 그 당시 산업사회 즉 산업자본주의가 발흥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본이 부의 원천이며 이런 부는 생산과 기업에서 창출되고, 따라서 분업과 시장, 경쟁, 수요공급, ‘보이지 않는 손’ 등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이들을 바탕으로 상품의 가치에서 출발해서 자유시장 경제의 사상을 정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시하면,



이에 비해 마르크스가 처한 경제현실은 스미스 때와 판이했기 때문에 그의 철학과 방법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스미스의 ‘부의 균등분배론’을 깨고, ‘유물변증사관’의 정식에 따라 사회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두 부분으로 구분한 뒤, 투하노동가치설에 의거한 잉여가치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본구조, 이윤율하락, 공황이론, 사회주의 이행론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도시하면,

가치 : $C + V + S$

잉여가치 : $S' = \frac{S}{V}$

이윤율 : $P = \frac{S}{C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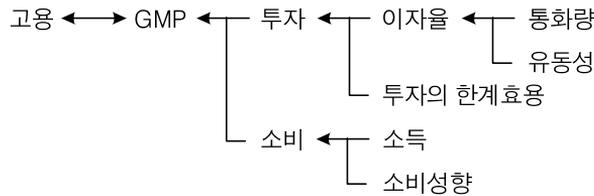
자본구성 : $Q = \frac{C}{C + V}$

이윤성 : $P = S'(1 - Q)$

(여기서, C =불변자본, V =가변자본, S' =잉여가치)

한편 케인즈의 경우 그가 생존하던 당시의 경제현실이 불황을 넘어 공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육 받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시장의 자동조절기능’ 즉, ‘수요·공급 균형론’을 깨고,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불안정한 투자의 한계효율곡선과 유동성함정 등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고, 이들의 투자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소비성향, 승수 등 새

로운 개념과 이들의 소비와의 관계, 이러한 소비와 투자등 주요변수가 GNP를 도출한다는 유효수요이론 즉 국민소득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도시하면,



이들이 당시에 제시했던 개념과 이론은 그 시대의 경제현실을 이해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책화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먼 훗날 다시 새로운 현실이 도래할 때까지 일정한 기간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정, 개념, 변수와 방법론을 선택할 때에는 일정한 수준의 통찰력과 직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헤아림 없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쉽게 집착한다면, 선불교(禪佛敎)에서 말하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달(진리 또는 원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격”이 됩니다. 직관, 통찰력,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흔히 ㉠ 변형된 ‘ceteris paribus’ vs 자동적 ‘mutatis mutandis’, ㉡ 단일요인분석, ㉢ 잘못된 집합성, ㉣ 부적절한 분리, ㉤ 잘못된 개념화의 경우 잘 나타나며, 이것은 결국 경제현상의 복잡성 때문에 연유되는 것입니다. 이 때 통찰, 직관이란 인간 고유의 초능력(super power)입니다. 인간의 통찰력은 정신적이며, 경험적, 반사적, 지적, 개체적이고, 의지나 말까지 넘어서, 형이상학적 양심과 이어지는, 순수하며, 인간 실재와 사고의 기초가 되는 초능력입니다.

개념을 이해할 때에도 통찰이 필요합니다. 개념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며, 개념없이 현실 세계를 직접 만나게 되면, 잡다함 속에서 지식의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모호와 혼란에서 탈피하면서 본질을 ‘붙잡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즉 개념이란 “미묘하고 유동적이며 모호한 인간의 경험 내용을 이론화하고 평균화해서 파악하는 작용”입니다.

7. 그런데 경제원리를 찾기 위해 경제현실에 자연과학적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주류경제이론의 ‘표준과학적방법’과 ‘형식적모델링기법’은 사회와 인간을 자연화하고 경제를 자연과 동일시하는 ‘자연동일’(unity)의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물성만 인정하는 물질주의적 일원론을 택하며 과학성, 객관성, 통약성등으로 고도의 단순화, 이상화, 추상화, 형식화로 나아갑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며 방법론적 개체주의, 원자론, 환원론, 논리

실증주의, 공리주의, 한계주의 등을 택합니다.

특히 Arrow-Debreu 이후의 형식적모델링기법은 경제현실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어떤 경제에도 같은 기법을 적용하며 또 너무 많은 비실제적 가정을 자의로 두고, 이를 일반화하며, 어디서나 수리방정식에 집어넣어 수학적, 완전형식화를 추진, 모든 경제현실을 자기기법으로 해독할 수 있다는 맹목적 신봉론(fetishism)과 과도한 수학적애호(virtuosity)에 매몰됩니다. 케인즈는 수리경제학의 문제점으로, “경제분석체계를 형식화하는 상징적인 의사(擬似) 수리방법의 가장 큰 결점은, 그들이 포함하는 요인 간에 엄격한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가정하고, 이 가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그 권위를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모델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철학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혼돈되고 복잡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모델, 가설, 이상향 등을 주관적으로 함수형태로 설정하여, 도구로서 대상에 근접하는데, 이 중 확률론적 조작을 수행하는 것이 계량경제기법입니다.

이러한 모델에는 동일한 사물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다양하므로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소득과 소비수준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식이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 이상의 ‘어프로치’가 있다는 것은, 그러한 조작이 과학적이라기보다 그 반대로 임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델과 ‘어프로치’는 결국 주관적, 임의적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객관적 기초가 없다는 의미에서 ‘근사’(approximation)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무수한 ‘근사’들 사이에는 아무런 본질적, 논리적 연관이 없고, 상호 의존적인 ‘잡다’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모델링 과정에서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기호화한 언어체계를 무제한적으로 창조해서는 안됩니다.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잇고 모델의 기호 조작에 매몰되면 연구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며, 기호철학의 ‘구문론적 규칙’에만 유일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즉, 원형(진실)으로부터 떨어진 모델을 순수한 언어체계와 수학적체계로 구성, 만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계량경제모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계량경제모델은 본질적인 경제적 운동의 카테고리를 단지 외적인, 현상적인 관계를 방정식의 설정과 그것의 수적 조작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모델에서 설정한 경제변수간에는 간결한 수학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으로도 보증되지 않습니다. 원래 통계적 기법은 동질적이고 반복적인 사상(事像), 즉 양적 측면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질적 다양성을 매개로 하여 그 장기적 변전을 대상으로 하는데에는 이 기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때 인과(因果)관계를 수학적 함수(函數)로 엄밀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통 주류경제학이 계량경제모델을 선호하는 것은 과학적 모델링을 추구하기 때문인데, 이는 결국 $y=f(x)$ 라는 관계식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화된 분석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모델을 선택하는 것, 즉 어떤 경제량 y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또한 오차항 u 의 분포에 관해서 어느 정도를 가정할 것인가(예를 들면 정규분포를 가정할까, 그것보다 더

욱 느슨한 가정만을 들까)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경제이론에 기초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점에 대해 상세히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이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개인의 판단이 내재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통계적 모델을 ‘가설’로 보면서, 그것을 현실 데이터에 조명해 검증하고, 만일 모순이 드러나면 그것을 버리고 다른 가설을 설정합니다. 만일 데이터와 모순된다면 그것을 정정함으로써 모순을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교과서에서는 주어지지만 현실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은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변수에 각각의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났는가의 정도를 나타낼 뿐, 그것이 일차식이 되는지, 이차식이 되는지, 더욱이 오차항의 분포형까지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현실에 ‘자연동일’의 방법을 쓰게 되면 경제원리를 창조, 작위(作爲)하게 되는데, 이 때 발견이 아니라 창조, 발명, 작위한다는 것은 사물을 현실대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연의 사유공간, 추상공간 속에 옮겨다 놓은 채 갖가지 방식으로 조작해 낸다는 것, 사물의 ‘등가물’(等価物)을 인간 특유의 추상공간에서 조작하고, 조작한 대로 현실 사물을 변형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환상’(phantasia), 즉 외관, 실재와 이데아의 그림자, 시물리크스, 사물이 아닌 이미지, 상(像)의 운동, 즉 상상(imagination)을 뜻하며, 결국 가상세계를 창조하는 극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원론을 위시한 경제학 교과서 대부분에서 모델을 ‘모형’(模型)이란 용어로 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형은 ‘항공기 모형’, ‘선박 모형’, ‘건축 모형’과 같이 실재를 규모만 축소한, 대단히 정태적인, 나아가 단순, 형식적, 소극적, 움직이지 않는, 또는 비철학적인 ‘용어’이며, 분석적인, 살아 움직이는 동태적이고 철학적인 ‘개념’(概念)의 합의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경제현실은 언제나 움직이고 변화하는 생명체와 같으며, 이런 현실을 허무주의에 바탕한 동상유질적 구성물로 표현하는 모델로 현실 타당성 있게 다루려면 모델 스스로 동태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델과 모형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요언하면, 복잡한 경제현실에서 경제원리를 찾기 위해 자연과학적 방법만을 사용하면 가상(假想)에 빠지게 되고 현실에 없는 인위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아무리 요즘 주류전통경제학이 조금씩 세련화되고 이론적, 경험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학(人間學)을 멀리하는 한, 결국은 ‘바벨탑’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지구 밖으로 향해하는 자연과학·기술에 인간이 개입한다면 지구 밖으로 그대로 낙하할 수 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개입되는 경제현실에 자연과학이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한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 이렇게 찾은 경제 원리는 한마디로 “물처럼 흐릅니다”. 생동, 가변, 가동합니다. 자연원리는 강고, 불변, 부동해서 물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서로 얽혀 막히고 맴니다. 하지만 물은 자연스레

막힌 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땅의 형세에 따라 흐름을 조절하는데, 경제원리는 이와 같지만 자연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자(孫子)는 병법(兵法)에서도 이와 같다는 ‘병형상수’(兵形象水)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강에 이르면 흐름이 거세어집니다. 계곡을 만나고 댐에 갇히면서 또 거센 바람에 격랑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도 이를 넘어 더 큰 강으로, 더 넓은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들어 더 거세진 인간의 오욕과 첨단과학기술 혁신으로 인한 의식 및 구조변혁으로 인해 사회의 복잡성이 더 가중되게 보일지라도, 원리는 스스로 이에 맞춰 모습을 바꾸면서, 더 큰 도의 바다로 합류하게 됩니다. 원리에 고정된 모습이 없는 것은 물이 일정한 모양을 띄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원리가 현실의 변화에 쫓아 그에게 맞게 모습을 바꿀 때 비로소 참된 원리가 됩니다. 물론 물도 언제나 깨끗할 수만은 없습니다. 흙탕물이 있고, 독성 있고 생명을 앗아가는 강도 있습니다. 현실도 정치, 이념, 전쟁 때문에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히려 불안정이 더 일상적일 수 있습니다. 자연은 그래도 비교적 한결 같다할 수 있지만, 인성은 경제에 관한 한 선과 악 중 악이 더 크게 작동됨이 보통이며, 정치, 종교 등과 뒤섞여 쉽게 흙탕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찾는 경제원리는 ‘보편언명’이란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현실이 흙탕이든 순백이든, 혼란이든 안정이든, 빈한이든 풍요하든, 우리에게 이들을 해석, 설명, 예언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런 원리는 말이 없고(無言), 보이지도 않고(不見), 색깔도 없어(無色) 찾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사물(事物)을 보는 대로 보는 한” 서로 부딪히면서도 질서 있게 조절되어 현실과 함께합니다.

기원전 96년경에 쓰인 사마천(司馬遷) ‘사기화식열전(史記貨殖列傳)’의 다음 구절은 이 원리를 보다 쉽게, 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 물품들은, 세간에 널리 사용되는 피복과 음식이고 산사람을 먹이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 쓰는 용품들이다. 그래서 농민이 먹을 것을 제공하고, 어민과 산민이 물자를 생산하면 공인이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고, 상인들이 유통시킨다[생산·교환]. 이런 일들이 어찌 정령이나 교화, 징발 또는 약속 등에 따라서 하는 것이겠는가[개입]? 사람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맞춰 힘을 다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분업·소비]. 물건 값이 싼 것은 곧 비싸질 징조이고, 값이 비싼 것은 곧 싸질 징조이다[물가].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분업·직업]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으로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모여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스스로 물품을 만들어 낸다[시장]. 이것이 어찌 도(원리)에 부합돼 저절로 그리되는 징험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옛날에도 생산, 소비, 분배, 유통, 물가, 분업, 시장 등이 서로 이어져 물과 같이 흘렀으며, 이것은 디지털화되고 생명이 중시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부부 간의 관계에도

연관된 비교우위론, 직업, 계층에 관한 차액지대설, 금융에 관한 화폐수량설과 Gresham법칙, 소비에 관한 Engel법칙, 임금에 관한 임금철칙설, 노동에 관한 Lewis 모델 등 경제원리는 물론, 나아가 속담, 격언, 사자성어, 경전 등 생활, 윤리, 생명, 사회, 인성 원리들도 나름대로 크고 작은, 강하고 약한 원리의 모습을 띠면서 함께 흘러갑니다. 마치 사람의 몸속에서 두뇌의 원리, 심장의 원리, 골격의 원리, 모발의 원리가 각기 다르면서도 모두 서로 조화, 조정되면서 신체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찾는 새로운 원리는 모두 이런 원리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천지만물의 이치(원리)이며, 그러나 이 원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습을 달리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원리와 섞여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현실은 그런 것이며, 원리도 그런 것입니다. 경제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원리는 물처럼 흐른다”를 경제철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① 경제원리의 복잡성(複雜性)과 가변성(可變性), ② 연기성(緣起性), ③ 다양성(多樣性)과 다의성(多義性), ④ 불완전성(不完全性)과 현실간극성(現實間克性)을 뜻합니다. 이런 원리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어떤 경제현실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제원리가 불변하고 인과적이고 일의적이고 완전하며 현실간극성이 없다면 이것은 자연원리와 같은 것이고, 그러면 강고해서 물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9. 그리고 지금의 이런 경제원리는 옛과 앞으로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경제학자들 중에는 경제원리가 서양에서 자본주의경제 하에서 등장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본주의가 도래하기 이전, 예컨대 중국 봉건농촌경제에서도 경제원리가 엄연히 존재했으며, 거기에서 작용하는 근본 원리도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사기 화식열전’이나 순자(荀子), 관자(管子)의 글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말하는 경제원리들이 기원전 중국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경제원리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그 발견의 방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철학·방법론 중 특히 인간학에 바탕을 둔 인간의 본성 즉 이욕(利慾)이 근본이며 이를 산업과 분업, 생산과 유통, 시장과 화폐, 금리와 지세, 토지와 제도, 중상과 중농, 부국과 강병, 문화와 윤리에까지 연관 지으며, 이 가운데서 경제원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물론 금융, 서비스, 무역, 농업, 지식산업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업운영, 경영전략, 상인정신까지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경제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탈법, 남용과 이를 견제하는 예의엄치, 도덕과 법에 관련된 문제까지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라는 인간본성과 시장의 원리를 명백히 밝힌 것은, 스미스의 국부론보다 2000년이나 앞서 등장한 명쾌한 경제이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화식열전만큼 고금일여의 경제원리를 담고 있는 고전도 흔치 않으며, 이것이 요즘들

어 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찾는 이유입니다. 특히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부민부국(富民富國)의 이치, 관중(管仲)과 자공, 사마천으로 이어지는 중국상가(商家)의 흐름을 21세기의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본서로 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의 여러 논거들은 요즘의 여러 경제원리와 비교해봐서도 경제원리로서의 성격과 요건에 조금의 하자가 없고, 그래서 예나 지금, 서양과 동양, 하등 다를 바 없음을 알게됩니다. 요즘 그 중요성이 밝혀지고 있는 사기열전은 물론 다른 여러 고전을 살펴봐도 원리란 무엇인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를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식열전 내의 여러 경제원리들은 관자와 사마천의 인성통찰(人性洞察)에서 밝혀진 것이었지만, 이들이 열거한 사례는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의 경험에서 실증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통찰과 경험이 함께 만들어낸 산물임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열전의 경제원리는 다름 아닌 사마천의 고전편력과 통찰, 직관,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것들입니다.

10. 경제현실이 급변하는 21세기 뉴밀레니엄시대에는 어떨까요? 1980년대 이후 진전된 경제사회의 소프트화(soft화)와 지식화, 첨단과학기술화, 특히 디지털화, 융합화는 경제구조의 변화, 취업구조, 투자구조의 변화와 생활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지, 환경, 고령화, 도시화, 세계화는 물론이고, 물질문명에 대응하는 생명과 정신문화의 부활, 모바일 기기의 혁명을 통한 초연결 현상의 강화 같은 거대한 변화들이 야기되고 있고, 그 결과 인류의 생활양식과 관습, 사고의식이 송두리째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작금의 경제상황은 마치 쿤(Thomas S. Kuhn)이 ‘정상과학’(normal science)에 ‘이상현상’(anomaly)이 생겨 과학혁명이 야기되고 이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 등장한다고 주장했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만일 기존의 이론으로 새로운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없다면, 이제는 이론이 그 모습을 바꾸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경제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또 쉽고 좁게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1세기에 들어 경제사회구조와 의식이 급변하면서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에 맞추어 경제원리도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원리가 자연법칙관과 사회인성관을 통합한 원리라고 한다면, 경제학자들은 최근 인지과학의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전통적인 밀(John Stuart Mill)의 이중성을 넘어, 그리고 리카도의 연역론과 허치슨(Terens W. Hutchison)의 실증주의 같은 일원론을 넘어, 보다 ‘철학화 및 이론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원리에서는 불변하는 자연에 바탕을 두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반증과 패러다임이 계속 등장하겠지만, 인문사회원리, 특히 경제원리는 변화하는 경제현실을 직접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새로운 원리를 계속 발견하고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새로운 경제원리는 바로 지금의 새로운 경제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만 비로소 제 2의 스미스, 마르크스, 케인즈가 탄생할 것이며, ‘진실근사’(verisimilitude) 한 ‘한국경제학’ 및 ‘21세기경제학’도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 결론적으로, 이러한 ‘한국경제학’ 및 ‘21세기경제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① 먼저 ‘자연≠경제(자연+인간)’라는 명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미 굳어져 버린 표준과학적 방법이란 색안경을 과감히 벗어버리면서, 고전 등을 통해 ‘인간학’의 통찰력을 키우며,

② 또 빅데이터 분석 등 최근의 컴퓨터 기술과 인지과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인성의 이론화’를 더욱 제고하면서, 21세기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의 현실 변화를 면밀히 조사, 검증하고 이런 변화의 근저에서 작용하는 주요변수, 특히 부의 원천인 변수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③ 이와 함께 기존의 여러 경제학 교과서에서 채택된 수많은 원리들 중에서 ‘좋은 겨자씨와 가라지’ 즉 ‘물처럼 흐르는’ 원리와 그렇지 않은 ‘가상’(假想)을 그리는 원리들을 분별하고, 이에 맞추어 지금의 경제원론이나 특히 미시경제학교과서를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④ 이렇게 한다면 교수들의 강의는 더욱 현실에 부합하면서 내용이 재미있고 풍부해질 것이고, 학생들의 안목과 식견이 깊고 또 넓어질 것이며, 경제정책의 현실 적용성도 제고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합리적 선택이나 효율, 균형, 한계, 게임’의 개념만을 중심으로 하는 ‘좁은’ 경제학을 극복하고, 이를 넓혀 ‘경제제민’, 또는 융합, 창조, 혁신과 긴장, 대립, 생명, 사랑 과 같은 21세기 경제 현실의 특성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새로운 ‘21세기경제학’이 탄생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경제학 방법론’을 바탕으로 이런 큰 집을 우리 함께 세워볼 생각이 없으신지요? 또 ‘경제학의 대개혁’을 이루어 볼 뜻이 없으신지요? 속고를 바랍니다.